

# 人力需要에 대비한 大學機能 強化方案

尹 亨 遠  
(忠南大 教育大學院長)

'90년대에는 學力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勞動代替彈力性이 높아져서 대학졸업 勞動力の 生産性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脫工業社會·제3의 물결에 대처할 高級人力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教育內容과 方法的 개선 등, 大學機能의 強化를 위한 多樣하고도 시급한 對策이 요망된다.

## I. 緒 言

教育企劃에 있어서 大學의 學科定員을 책정하든가 또는 學科育成을 시도할 때 두 가지 側面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社會需要(social demand)의 측면의 考慮이며 다른 하나는 國家人力要請(manpower requirement)의 측면의 配慮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얼마나 大學에 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大學을 육성하는 경우가 前者의 경우이고, 國家가 發展하는 데 요구되는 高級人力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이나 필요하냐를 따져서 그만큼의 育成을 시도하는 것이 後者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大學定員 책정이나 육성에서 社會需要와 人力要請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결국 國 教育 문제를 일으키므로 兩者間에 均衡點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즉 教育에 관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最適點을 찾는

데 있어서 國家가 필요로 하는 教育의 供給과 個人의 自覺된 教育의 需要가 合致點에 도달될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大學定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81년부터 大學定員을 대폭 늘릴 때 너무 需要的 側面에만 치중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대학 學科設置와 增員을 허용하고 말았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100萬名에 가까운 再修生의 累積과 國民의 教育的 慾望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또 卒業定員보다 入學定員을 30%나 많게 함으로써 입학 후의 수학 경쟁을 통하여 質的 水準을 보장하고자 한 論理에 대하여 그 妥當性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卒業定員 자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대확정되었고 다양한 大學內外의 與件으로 學分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교수와 시설의 부족까지 겹쳐 大學教育機能이 약화된 상태에서 卒業生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

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만다. 여기에다 大學卒業生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구조상의 需要減少는 大學人口 增大의 현실적 의미를 허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차제에 國家의 人力需要와 大學機能強化라는 二大相互補完의 함수 關係를 概念的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逆機能的 大學葛藤 解消方案과 그 발전적 教育力 培養을 향한 座標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 II. 大學의 使命

大學이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 문제에 대한 通俗的 解答은 극히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졸업장을 주고 그것으로 上流社會를 향한 信任狀을 얻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文教部나 大學當局이나 國民 모두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大學에서 발생하는 산적된 問題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지도 모른다.

비록 教育法 第108條에는 國家와 人類社會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기 위하여 大學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지만 學術의 심오한 理論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또 應用方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教育法精神에서 제시하고 있는 大學의 機能만 하더라도 소위 教授·研究·人格 完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이탈적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初期(12~3世紀)의 이테리(블로냐·살레노)와 불란서(파리)大學은 가르치겠다는 사람(교수)과 배우겠다는 사람(학생)이 자발적으로 모여 宿舎(Collegium)를 만들고 교수와 학생의 組合(Universitas)을 형성한다. 이때의 대학은 宇宙 속의 哲學에 대하여 깨우치는 활동 즉 教授의 機能으로 시작되지만 깨우침의 결과를 어디에다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순수 르네상스적 진리 탐구였다. 그러나 차츰 文化가 축적됨에 따라 대학은 단순한 知識의 傳達이라는 教授機能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효과적 교수 기

능에는 새로운 知識과 文化의 創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차츰 대학의 研究機能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대학의 研究機能이 現代의 意味의 大學固有使命의 일부분으로 정착된 것은 베를린大學의 훔볼트안革命 이후이며 美國에서는 하버드大學 엘리울 총장의 研究教授制 활용에서부터 비롯된다. 한편 대학의 社會奉仕의 機能은 대학이 축적한 知識이나 人力이 社會로 흘러나와서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엄격히 따지면 大學教育의 結果로 나타나는 卒業生의 自然發生의 社會流出도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社會奉仕機能은 스크트렌드식의 公開講座에서 비롯되며 現代의 意味의 적극적인 社會發展에 참여하는 계기는 美國의 土地交付大學(Land Grant College)과 都市交付大學(Urban Grant College)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大學의 네째 기능인 理想社會 創造의 기능은 대학이 社會組織 중 가장 理想的의 모델로 등장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회 조직이 大學의 勸學수법을 배움으로써 社會가 發展的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英國 大學의 紳士道教育이나 여러 나라 대학이 엘리프의 人格陶冶에 강조를 두는 전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大學과 國家와의 關係는 대학이 국가로부터 憲章(Charter)을 부여받음으로써 法人格의 地位를 확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憲章은 대학이 해야 할 機能을 다함으로써 國家의 發展에 공헌하는 대신 국가의 財政의 支援이나 固有權限을 보호받는 일종의 상부상호적 계약이다. 이에 따라 大學은 理事會(Board of Regent or Trustee)를 구성하고 여기서 總長(President or Chancellor)을 뽑으면 總長은 教授會(Faculty Senate)와 學生會(House of Student)를 통하여 學則을 마련한다. 學則은 배우겠다는 學生과 가르치겠다는 教授간의 대학 기능 수행을 위한 계약이다. 고로 學則運營의 基礎單位는 學生과 教授의 일차적 接觸單位인 學科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 III. 大學教育의 社會的 需要

大學教育을 社會住民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

여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 사람들의 敎育觀과 대학에 거는 期待感에 의하여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敎育觀은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敎育을 보는 견해가 강하다. 즉 敎育을 社會的 地位上昇을 위한 手段으로 보는 견해다. 그러나 大學의 機能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은 職業訓練機關이 아니다.

물론 學問을 하는 데 있어서 純粹學(pure science)이나 應用學(applied science)이나에 따라 직업 관련성이 달라지며 後者의 경우 專門職(profession)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專門職(의사, 변호사, 교사 등)은 고도의 순수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한 직업 훈련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敎育은 부수적으로 社會地位向上이라는 身分改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目的이나 使命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여간 傳統的으로 대학은 學問探究 자체에 價値가 있다는 순수 르네상스적 學問觀에서 비롯되고 점차적으로 삶을 올바로 깨우치는 데 필요한 知識 즉 眞이 生活을 개선함에 힘이 된

다는 學問觀으로 확산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대학은 能力主義나 實績主義的 知識觀보다 卒業狀이 결국 좋은 자리를 보장하는 車票가 될 수 있다는 格式主義나 要式主義에 너무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目的的 學問觀은 결국 大學進學率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源泉的 機能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學術的 水準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 IV. 大學卒業生의 向後進路 傾向

〈表 1〉과 〈表 2〉는 1985년까지의 大學卒業生의 進路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4年制 大學 卒業生만 하더라도 '85년 현재 약 12만 명 졸업에 就業者는 5만 명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졸업자의 未就業者 積滯現象은 지금 현재에도 '76년 이후의 4年制 大學 卒業生 중에 약 30만 명이 就職을 못하고 있는 상태까지 악화되고 있고 專門大學까지 포함시키면 실로 엄청난 누적 현상을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向後 '90년 전후까지 나타날 大學卒業生

〈表 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연도별 진로 및 취업 추이

구 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적자	입대자	미상	취업률
1976	34,725	2,225 (6.4)	21,299 (61.3)	4,188 (12.1)	4,454 (12.8)	2,559 (7.4)	75.9
1977	37,374	2,620 (7.0)	22,807 (61.0)	4,040 (10.8)	4,516 (12.1)	3,391 (9.1)	75.4
1978	41,680	3,241 (1.8)	26,287 (63.1)	3,007 (7.2)	4,865 (11.7)	4,300 (10.3)	78.3
1979	45,424	4,300 (9.5)	29,378 (64.7)	3,776 (8.3)	4,844 (10.7)	3,126 (6.9)	80.9
1980	49,735	6,088 (12.2)	28,349 (57.0)	4,757 (9.6)	4,796 (9.6)	5,745 (11.6)	72.9
1981	55,846	7,634 (13.7)	28,524 (51.1)	6,453 (11.6)	6,810 (12.2)	6,425 (11.5)	68.9
1982	62,688	8,401 (13.4)	33,988 (54.2)	6,535 (10.4)	7,250 (11.6)	6,514 (11.4)	72.3
1983	77,272	9,751 (12.6)	38,489 (49.8)	10,796 (13.9)	9,974 (12.9)	8,262 (10.7)	66.9
1984	90,888	10,985 (12.1)	43,907 (48.3)	16,630 (18.3)	10,761 (11.8)	8,605 (9.5)	63.5
1985	118,584	12,278 (10.8)	48,552 (40.9)	27,441 (23.1)	13,163 (11.1)	17,150 (14.5)	52.1

주 :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100

2) ( ) 안은 해당년도 졸업자의 비율임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6~1985를 인용한 KEDI 강무섭연구팀 제작

〈表 2〉 전문대학 졸업자의 졸업 연도별 진로 및 취업 추이

구분	졸업자	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임대자	미상	취업률
1981	51,935	6,575 (12.7)	12,777 (24.6)	8,848 (17.0)	14,342 (27.6)	9,393 (18.1)	41.19
1982	57,143	4,421 (7.7)	16,475 (28.8)	9,900 (17.3)	13,846 (24.3)	12,501 (21.9)	42.37
1983	72,632	4,417 (6.1)	24,488 (33.7)	12,422 (17.1)	19,706 (27.1)	11,599 (15.9)	50.48
1984	68,406	4,369 (6.4)	27,094 (39.6)	10,635 (15.5)	14,908 (21.8)	11,400 (16.7)	55.14
1985	73,927	6,991 (9.5)	29,556 (39.9)	11,035 (14.9)	15,282 (20.7)	11,063 (14.9)	57.21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전학자 + 임대자) × 100

2) ( )안은 해당년도 졸업자에 대한 비율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1~1985를 인용한 KEDI 강무섭 연구팀 제작

를 위한 人力要請과 就業展望을 알아보던 다음과 같다.

첫째로, 4年制 大學 卒業者는 '86년과 '87년에는 각각 14만 명과 15만 명 내외가 될 것이고, '88년 이후에는 2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나 就業者는 6만 명에서 8만 명 사이를 맴돌 것이므로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도 '90년 가던 80만 명 정도<sup>1)</sup>의 4年制 大學 卒業者의 失業者群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로, 4年制 大學 卒業者가 20만 명이 될 때 대충 8만 명 정도의 就業가 가능하겠지만 이 중 약 3만 명 정도는 大學學力과 無관한 職種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産業構造上으로 大學卒業 資質을 요하는 職業은 우리나라의 경우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高卒者나 그 이하의 學力으로도 할 수 있는 職種이며 여기에 大學卒業者가 취업하는率が 높아지는 밑하자면 學歷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학력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勞働代置彈力性(elasticity of labor substitution)이 높아져서 大學卒業 勞働力의 生産性이 저하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82년 入學者부터 급증한 大學人口는 기존의 施設·敎員·組織·敎育課程·敎具·敎材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의 集團示威 등은 대학의 원천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心血을 기울일 기회

조차 박탈해 가고 있으므로 低水準의 學生을 입학시켜 무능한 졸업자를 배출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專攻과 無관한 職種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質的 向上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90년대에 닥쳐올 脫工業社會에 필요한 高級人力과는 無관한 大學卒業者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볼 때 大學機能向上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네째로, 大學敎育의 機能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脫工業社會 또는 제 3의 물결에 대비한 敎育內容과 方法의 改善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産業別 勞働人口의 配分이 달라진다. 200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1次産業에 종사하는 勞働力은 현재의 30%에서 20%로 감소하게 되고, 2次産業 従事者도 25%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15%까지 하락할 전망을 보일 것이다. 대신 3次産業 종사자가 늘어나 70%에 가까워질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분명한 것은 1次産業과 2次産業도 自動化와 尖端基礎科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직종이 새로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3次産業은 현재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서어비스 직종이 형성되어 갈 것이나 여기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현재의 敎育內容과 方法으로는 거의 배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試驗爲主의 暗記敎育이 아니라 問題解決力·創意力·分析力·綜合力·批判力 등

1) '85년까지 30만 명, '86년에서 '90년까지 50만 명으로 추정됨.

의 基礎的 高等精神機能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原理的 素養과 知識自體보다 知識學習能力이 더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責任·誠實·忍耐·寬容 등과 같은 基本 德性이 없으면 自動化社會에서 生存價値가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就職이 안 되는 教師資格證所持者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되는 사람은 教師資格證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알고 그것을 컴퓨터보조학습기(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에 활용하여 다양한 학생의 능력에 맞도록 응용성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든지 有望性을 인정받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앞으로 大學卒業者의 직업은 大學當局과 大學卒業者 자신이 이런 能力을 배양해서 職業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것이 잘못되면 大學卒業生이 많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시킬 것이 확실하다. 專門大學까지 합하면 1990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大學卒業 失職者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70년대말의 大學再修生을 社會再修生으로 옮겨 놓은 결과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로, '9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국민들이 大學當局과 大學卒業者에 거는 기대와 가치관이 변형될 것이다. 지금처럼 盲目的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學父母나 진학하는 學生이 줄어들 것이며 어떤 能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어떤 教授의 指導를 받아야겠다는 확고한 信念을 바탕으로 한 大學進學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대신 大學의 學生選拔能力과 未來指向의 學問創造와 社會改造能力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존속하기 어려운 大學과 學科가 속출할 가능성이 짙다. 현재에도 一部地方이나 群小大學에서는 入學者의 30% 정도가 中途退學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차츰 확대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大學內部的 機能強化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성할 때가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大學의 自律組織化를 적극 추진하는 일에 政策的 優先順位를 인정해야 한다. 대학은 현재 거의 侷內組織化(domesticated organization)되어 버렸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조직이다. 사실 大學보다 교육하는 방법을 아는 데 더 專門的인 人力을 가진 조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데도 모든 것을 外部指示로 움직이는 機制自體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大學에게 憲章이나 設置令을 주되 그 속에서 理事會와 教授會 그리고 學生會間의 契約을 學則化하고 이를 시행하는 能力을 배양하는 것은 大學이 해야 할 本分이다.

## V. 結 語

분명 '90년대의 大學이 國力을 바탕으로 그 소임을 다하느냐 아니면 社會崩壞의 要因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大學이 어떤 자세를 가다듬느냐에 달려 있다.

바람직한 자세는 大學이 未來社會에 필요한 지식을 찾고 그것을 적절히 전파하며 이를 통하여 社會改造와 理想社會創造를 夙心수범하여 실천하려는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政策當局의 大學自律에 관한 風土造成을 서두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련된 다양한 立法化를 서두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大學自體의 획기적 機能改善을 위한 內部革新과 發展戰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學生이나 學父母가 大學에서 학문탐색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때 비로소 價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個人의 社會的 地位向上보다는 國家의 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人間이, 眞理探究 자체의 沒我的 境地에 도달할 때의 歡喜를 더득하는 學風이, 人格의 陶冶가 理想社會創造의 礎石이 됨을 믿는 德性이 함께 형성되는 大學을 재구성할 때가 온 것이다. \*